

示威鎮壓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좀 잔악한 행위 대검을 사용했다든가 진압봉으로 때려서 많은 死傷者가 발생하고 死亡者가 발생했기 때문에 光州市民이 분개해 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各 機關長이라든가 有志들이 그 당시 蘇後烈 CAC司令官 31師團長등에게 항의를 해가지고 그날 機關長會議도 있었으며 그날 저녁에는 31師團에서 指揮官會議를 했습니다.

한 16名이 참석해 가지고 會議를 했는데 말하자면 示威를 진압하면서 너무 流血이 낭자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無血鎮壓命을 師團作命 3號로 下達한 사실이 있는데 證人께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證人 安富雄 모릅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旅團으로 그것이 下達돼가지고 旅團에서 다시 大隊로 왔을텐데 그런 命을 下達받은 사실이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1師團長은 命을 下達해도 그 命이 大隊까지 먹혀들어가지 않는 말하자면 虛勢에 불과한 命이라는 2元指揮라는 얘기가 지금 입증될 수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安富雄 2元인지 3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旅團長으로부터 받은 命外에는 없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一般的인 상식같은 戰關大隊長한테는 旅團長이 받은 作戰命令書가 下達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證人 安富雄 口頭로도 命이 下達이 됩니다.

○崔鳳九委員 口頭로든 書面으로든 당연히 신속하게 命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證人 安富雄 예. 원칙입니다.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作命은 한번 作戰命令을 下達하게 되면 어디까지 그 사수해라 어떻게 하라 하는 作戰命令은 다음 指示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證人은 11旅團 總정지침에 총포사용은 司令官의 指示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것은 기억이 안나고 잘 모릅니까?

○證人 安富雄 예. 기억이 안납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大隊長하실려면는 一線에서 총도 쓰고 진압봉도 사용하려면는 그런 말하자면 旅團의 總정지침 정도는 숙지가 되어야 大隊長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텐데 더군다나 총포사용에 대해서는 司令官의 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면 중대한 過失을 犯했구만요.

○證人 安富雄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崔鳳九委員 그 당시의 總정지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證人께 제가 이것은 간단히 묻겠습니다.

空輸部隊는 다른 部隊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軍隊니까 軍紀도 상당히 엄하지요?

○證人 安富雄 엄합니다.

○崔鳳九委員 그리고 공격력도 상당히 강한 部隊이고요.

○證人 安富雄 참을성도 많습니다.

○崔鳳九委員 참을성도 많고 공격력도 강하고.....

그런데 大隊長께서는 상당히 호들갑을 많이 떨다. 아까 보니까.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참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上命下服도 절대적이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軍隊에서는 作戰命令은 절대적으로 이행되어야 되고 下級者는 지켜야 되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證人의 직속상관이 당시 11旅團長입니다. 崔 雄씨는 證言하시기를 大隊長으로부터 급박한 狀況報告를 듣고 發砲許容指示를 요청받았으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발포를 못하게 했다고 그 자리에서 證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證人이 혹시 發砲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지난번에 그 證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崔鳳九委員 들었는데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證人께서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러니까 아까 제가 狀況說明을 드릴 때에 兵士들이 實彈을 달라고 아우

성을 치고 더 철수할 데가 없다 旅團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을 제가 旅團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지고 아마 自衛權을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旅團長께서 어떠한 회생을 치르더라도 發砲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實彈이 없는데 發砲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旅團長이 發砲를 못하게 한것은 그것도 하나의 명령이지요?

○證人 安富雄 명령입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5月21日 13時입니다. 道廳앞 集團發砲狀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部隊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發砲를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조금 전에 證言 했지요?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그리고 發砲 사실이 있고난 이후에 언제 報告를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때에는 자세한 상황을 報告를 하지 못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報告를 못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못한 것이 아니라 交戰狀況이 있었다 그것으로만 끝났습니다.

先 措置 後 報告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旅團長에게 周南에 가서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 가지고 21日 상황을 報告드리게 된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31師團長이 無血作戰指示를 내렸고 旅團長께서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發砲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은 명령이지요? 그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명령입니다.

上級者가 下級者한테 作戰指示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했는데 先 措置 後 報告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軍에서 上級者의 명령을 下級者가 위반하면

서 先 措置 後 報告 그런 논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證人 安富雄 狀況處理를 하려면 우선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狀況處理를 하지 않고 그러면 兵力 다 죽인 다음에 무슨 報告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崔鳳九委員 證人께서 兵力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道廳앞의 發砲狀況으로 그날 死傷者가 얼마인지 압니까?

市民이 54名입니다.

○證人 安富雄 道廳앞에서만 그렇습니까?

○崔鳳九委員 54名の 死傷者가 發生했습니다.

○證人 安富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을 않습니다.

○崔鳳九委員 아까 公用 「터미널」에서 7·8名の 屍體가 발견된 것도 못 보았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상당히 편리하게 된 분입니다.

불리한 것은 못 보고 불리한 것은 못 듣고 또 유리한 것은 보고 유리한 것은 듣고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된 感覺機能을 가지고 있습니다.

○證人 安富雄 委員님께서서는 道廳앞에 車輛으로 전부 배치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상황들도 다 보입니까?

○崔鳳九委員 車가 오면 피하면 사람 안 다칩니다. 국민의 生命을 지키는 軍인이……

○趙洪奎委員 54名 죽은 기록이 있어요.

○崔鳳九委員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지요.

저는 아까 證人께서 말씀하시길래 越南戰도 參戰했고 특히 空輸部隊의 大隊長을 하시고 상당히 용감하고 국민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軍人으로 알고 존경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道廳앞에서 54名이 死傷을 했다는 公式記錄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니 말씀이 됩니까?

그리고 道廳앞에서 銃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市民이 銃을 쏘았다면 銃傷者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名도 없고 단지 APC 裝甲車에 깔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 權某 上兵…… 안 타까운 분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일꾼분이

다쳤는데 애석한 일은 애석한 일입니다. 저
도 가슴 아파요. 하지만 軍人은 위급한 상
황에서 爆發物이 있으면 一般 國民은 대피시
켜 놓고 그 위험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軍人입니다.

그런데 一般市民이 버스 한臺 물고오는 것
이 噴水臺에 받혀서 샀지 않아요. 그런 一
過性 한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무런 繼
續的인 위험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銃을
亂射해 가지고 54名이 다쳤어요.

다친 것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證人께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
면 말씀이 되겠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때 상황으로서는 市民이 얼
마나 죽고 다쳤는지 모랐지요.

그때 상황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
까?

○崔鳳九委員 軍人이 銃에 다친 사람은 그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一般人이 市民이 銃을 쓰고
裝甲車를 들진시키고 아주 그냥 泰山이 무너
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泰山鳴動에 風一匹
입니다. 한사람도 軍人이 銃傷으로 다친 사
람이 報告가 없어요.

○證人 安富雄 銃으로만 위협하는 것이 軍人
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한
대 들진해 오면... 버스가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없었는데 계속 銃
을 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軍人이 피하려면 道廳안으로 들어가면 道廳담
을 의지해서 隱身한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道廳안에 들어가면 避身處
가 얼마든지 많은데 담이 있고 그러지 않습
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가지고 亂射한다
는 것은 하나의 傍若無人한 정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證人 安富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
답하고 다음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證人은 당시 崔 雄씨의
證言에 의하면 實彈配給을 갖다가 아까 자기
는 朝鮮대에 撤收해 가지고 주었다고 그랬거

든요. 그랬는데 아까 實彈 어디서 補給받
았다고 그랬지요? 實彈을 어디에서 구해 가
지고 배급했다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31師團兵力한테 배급받은 것입
니다.

○崔鳳九委員 누구한테서 받은 것입니까?
31師團 누구한테서...

○證人 安富雄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崔鳳九委員 여기 31師團長도 이 자리에 지
금 參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MBC와
CBS放送局에 파견되었던 軍人은 19日 20日
이미 撤收한 이후라는데 撤收한 이후의 軍人
이 명령도 받지 않고 例를 들어서 空輸部隊駐
屯地域 空輸部隊作戰地域에 남아 있었다는 사
실은 또 우리가 常識的으로 믿기지 않는 애
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答辯안 해도 좋으니까 一般 視聽者들한테 판
단을 맡깁시다.

○證人 安富雄 戰鬪詳報에도 그것이 23日
MBC... 31師團兵力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崔鳳九委員 글썽 그것은 하나의 사후 얘기
이고 사실상 實質的으로는 20日까지 전부 撤
收가 완료되었어요.

○證人 安富雄 어디로 撤收를 했습니까?

○崔鳳九委員 31師團 자기 作戰地域이지요.

○證人 安富雄 완전히 다 포위된 상태인데
어디로 撤收했습니까?

지금 MBC를 경계하고 있던 31師團兵力이
완전 포위되었다 하는 것이 戰敎司戰鬪詳報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21日 아닙니
까?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證人! 證人한테 다
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松巖洞 誤認射擊한 것 하고 良民虐殺事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松巖洞에서 왜 步兵學校兵力하고 誤認交戰한
것 있지요?

○證人 安富雄 誤認交戰한 것 알고 있습
니다.

○崔鳳九委員 그 당시에 61大隊가 光州抗爭期
間中에 전부 戰死者가 몇명입니까?

○證人 安富雄 저희 大隊말씀입니까?

○崔鳳九委員 예.

○證人 安富雄 저회 大隊는 負傷者는 40名 있고 戰死者는 없읍니다.

○崔鳳九委員 戰死者가 없어요? 松巖洞 거기는 61大隊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周南마을의 良民虐殺事件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도 62大隊 사항입니다.

○崔鳳九委員 62大隊사항입니까?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그리고 아까 洪錦淑證人이 조금 전에 와서 證言했는데 어떤「마이크로버스」에 탄 18名의 一般市民들 武裝市民들이지요. 그 射殺事件도 證人의 大隊가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崔鳳九委員 그것도 62大隊입니까?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아까 實彈을 31師團 退却하는 兵力으로부터 引繼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證人의 大隊누구가 31師團兵力 누구로부터 引受引繼가 되었는지 受拂이 서로 된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을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회 大隊가 가져왔는지 다른 大隊가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지금 아직 糾明을 못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當時 實彈은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두탄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崔鳳九委員 두탄통이면 대충 몇발이지요?

○證人 安富雄 1680발입니다.

○崔鳳九委員 1680발?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아까 撤收兵力은 대충 어느 정도였습니까? 31師團兵力은 대충 몇명이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제가 알기로는 2個分隊정도가 撤收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2個分隊? 그러면 「헬리콥터」는 몇대가 왔습니까?

○證人 安富雄 제가 본 것은 두번 정도 보았습니다.

○崔鳳九委員 두번정도 「헬리콥터」가 왔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몇명이 탈 수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한 8名탈 수 있지요

○崔鳳九委員 8名... 2個分隊 그러면 2個分隊면 16名 한 사람한테 100발이지요? 2個分隊이면 16名정도 안 됩니까?

○證人 安富雄 예.

○委員長 文東煥 質問 정리해 주세요.

○崔鳳九委員 마지막 한마디 문졌읍니다.

證人의 부대는 출발할 때 1人當 60발씩 휴대하고 내려 왔지요?

○證人 安富雄 예.

○崔鳳九委員 그렇다면 31師團에서는 1,600발이면 2개분대면 몇 명입니까 兵力이?

○證人 安富雄 18명이지요.

○崔鳳九委員 그러면 1人當 90발 정도 가까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證人의 부대가 31師團 兵力으로부터 實彈 1,600발을 인수받아 가지고 장교들의 발포명령은 없었지요?

○證人 安富雄 없었습니다.

○崔鳳九委員 발포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교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발포를 했다고 그러면 軍人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旅團長으로부터 엄한 발포금지 지시가 있었는데도 발포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安富雄 그때 사격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崔鳳九委員 정당방위라면 市民들이 사격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꼭 시민이 사격을 해야만이 정당방위입니까?

차량으로도 밀어붙여셔도 예를들면 그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버스는 한대만 오다가 그쳤지 않습니까? 발포는 정당방위였다 市民은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600발의 實彈을 가지고 장교들이 10발씩 實彈을 나누어 가지고 쏜 것은 정당방위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證人 安富雄 그러면 사람을 잘아몽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崔鳳九委員 차가 들어오면 피하면 돼요. 도청 앞으로 지나가면 차가 도청으로 진입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청 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총을 쏘았다는 것은 國民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分입니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오늘 證人이 訊問 받는 태도를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委員들한테 인사를 정중히 해서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봐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태도를 보니까 그것은 우리 委員들에게 그와같은 안심을 일단 시켜놓고 우리 委員들을 어떻게 하면 속여볼까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택해볼까 이러한 證人의 저의에서 나온 것이 엿보입니다.

證人 어제 金一玉證人의 訊問 광경 보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보았습니다.

○崔鳳九委員 또 지난번에 전승만證人 證言 봤습니까?

○證人 安富雄 봤습니다.

○崔鳳九委員 그것을 보고 여기있는 特委員들은 물론이고 온 國民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光州抗爭에서 170餘名이나 되는 무고한 비무장 시민들이 죽고 1,000餘名이나 부상을 당했는데 그와같이 뻔뻔할 수가 있느냐 뻔뻔히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

證人! 證人도 지금 證人의 證言을 온 國民들이 주시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證人이 이와같은 光州抗爭에서 희생된 사상자들에 대해서 반성의 빛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죄를 하느냐 안 그러면 證人만 잘했다고 그들에게 뻔뻔스럽게도 뉘우치는 빛이 계속 없이 위증을 계속할 것이냐 이와같은 證人의 태도를 지금 온 國民이 주시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證人은 사실태도만 證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證人이 歷史의 심판을 받고 國民과 國會를 우롱하고 또 國會에 나와서 위증을 하고 그것으로 위증으로 고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證人 安富雄 알겠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 조감제記者 아세요?

○證人 安富雄 압니다.

○張石和委員 알죠 조감제記者하고 얘기 나눠 본 적 있어요?

○證人 安富雄 예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조감제記者가 쓴 88年度 7月號 "空輸部隊의 光州事態" 여기에 보면 證人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全羅道出身 部隊員들이 동요한다는 報告를 받고 그들을 잠시 뒤로 물린 적이 있었다 이렇게 11旅團의 大隊長이었던 한 現役大領이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證人이 얘기한 것이죠. 아까 그렇게 證言했지요?

○證人 安富雄 예.

○張石和委員 그리고 또 200「페이지」에 보면 당시 11旅團의 한 大隊長은 이렇게 말했다. 民主群衆은 數十萬名으로 불어나는데 上部에서는 宜撫로서 대응하라고 하고 부하들은 실탄을 달라고 호소해 왔다 20日부터는 우리 空輸部隊가 수모를 당해야 했다 積極的인 鎮壓을 포기하고 防禦的인 鎮壓을 할 수 밖에 없었고 示威隊와 대치하여 그냥 서있기만 했다 어떤 示威群衆은 공수부대원의 「헬기」를 몽둥이로 툭툭 치면서 육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그 兵士한테 어떻게 참았느냐고 물었더니 愛人생각만 했다고 하더라 유방을 우리가 도려냈다고 했는데 대검으로는 찌를 수 있지만 벨 수는 없다 한번 실험해 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했죠. 좋습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진술을 證人에게 확인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조감제記者가 쓴 그 기사의 202「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11旅團 大隊長이 얘기한 것인데 우리 大隊는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았다 大隊長이 갖고 다니는 警戒用 실탄조차 朝鮮大學에 두고 나왔었다. 午後 2時쯤 31師團 「헬기」가 道廳에 내렸을 때 警戒用 실탄을 갖고 왔었다 이것을 수령했었다. 午後에 發砲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道廳 근처의 「빌딩」위에 空輸部隊員들이 올라가 아

래를 향해 射擊한 것도 엄호용이었다 그때 數十萬 群衆을 향해 본격적으로 쏘았다면 그 정도만 죽었겠는가 21日 午後에 空輸部隊는 일부 大隊에서 경계용실탄으로 대처한 것이고 本格的으로 戰鬥用 실탄을 공급받은 것은 光州에서 철수한 뒤인 22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證人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같이 했으니까...

○張石和委員 다른 사람 누가 같이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11旅團의 大隊長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조감제記者하고 「인터뷰」했으면 조감제記者를 불러서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나 또한 對質問해야 되고 해서 證人이 아는 사실은 여기서 答辯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委員長 文東煥 答辯 거부하는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제가 했다고 하십시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분명히 지금 本委員이 2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고 證人이 한 얘기나 했더니 證人이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料明한 것입니다. 證人이 시인한 내용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午後 2時쯤 31師團「헬기」가 道廳에 내려왔을 때 警戒用 실탄을 갖고 왔었다. 이것을 수령했었다 이렇게 분명히 證人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왜 방금 지금 證言에 의하면 證人이 31師團의 어느 누구로부터 누군가가 실탄을 수령했다 이렇게 사실과 달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이 사실과 달리 얘기합니까?

○證人 安富雄 지금 그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분간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 지금 本委員이 읽어 준 조감제記者와 證人과의 대담내용은 證人이 시인한 내용이지만 이 警戒用實彈을 어디서 수령했느냐 午後

2時쯤에 31師團「헬」機가 道廳에 내려올때 警戒用實彈을 갖고 왔었는데 이것을 수령했다 이렇게 證人이 證言했어요. 이것과 證人이 조금 아까 31師團으로부터 어느 部隊員으로부터 어느 누군가 수령을 했다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것입니다.

○證人 安富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은 31師團으로부터 실탄을 수령을 해 왔다하는 것을 내가 직접 가서 수령을 해 왔다하는 그런 표현으로 된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張石和委員 여기는 31師團「헬」機가 그 警戒用實彈을 가지고 道廳에 내려서 그 「헬」機로부터 실탄을 證人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證人 安富雄 31師團에서 실탄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잘 이해가 안 갑니다.

○張石和委員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헬」機는 31師團所屬의 「헬」機입니다. 그런데 그 「헬」機가 警戒用實彈을 싣고 왔습니다. 그 실탄을 證人이 수령한 것입니다. 「헬」機가 도착하자마자 그 실탄을...그 사실이 어떻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이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아니 證人이 금방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 내용이 달리 나왔는데 실탄을 31師團 警戒兵力이 가지고 있던 실탄을 얻은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여기서 그러면 202「페이지」에 지금 조감제記者와 대담한 내용을 證人이 아까 시인을 해놓고 다시 또 부인을 하는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그 내용의 실탄은 지금 31師團 兵力으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은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1師團에서 실탄을 우리한테 보급을 해주었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틀리지요.

○張石和委員 그러면 31師團 「헬」機가 11旅團本部에 가 가지고 朝鮮大學에 가 가지고 그 11旅團本部에 저장해 놓은 실탄을 가지고 그 「헬」機가 道廳앞으로 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을 證人이 수령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아니에요? 여기 記事內容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證人 安富雄 그것은 조사하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실탄분배를 했지요?

○證人 安富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실탄분배라고 하는 것은 곧 發砲命令인 거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저희 部隊에서는 野戰例規上 훈련이나 작전나갈 때도 장교들에게는 警戒用實彈을 꼭 휴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자기부하를 살릴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에 있을 적에는 상황처리하러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에서 장교들에게 실탄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것이 곧 發砲許容이 아닙니까? 發砲命令

○證人 安富雄 그것은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張石和委員 그것은 崔 雄 旅團長도 실탄분배가 곧 發砲許容이다 이렇게 그자리에 나와서 證言했습니다. 證人의 上官도 證人이 지금 15年동안... 아까 몇年동안 근무했다고 그 했어요?

○證人 安富雄 大隊長으로 15年입니다.

○張石和委員 大隊長 15年입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證人이 알고 있어야지요.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證人이 아까 총을 사용할 때에는 적과 교전중일 때만 上官의 發砲命令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證人 安富雄 통제할 때...

○張石和委員 글썽 적과 교전중일 때...그런데 아까 우리 崔委員도 얘기를 했고 陸軍本部作戰教範 91「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上官의 發砲命令 없이는 發砲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證人 安富雄 어느 法規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陸軍本部作戰教範 91「페이지」證人 그것 못 봤어요? 또 아까 崔鳳九委員이 애

기한 증정作戰計劃指針 證人 못 봤어요? 證人이 이와같은 기본적인 教材도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正當防衛때는 發砲命令을 받지 않고서 그대로 싸도 된다 이렇게 證人이 證言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崔 雄 旅團長은 發砲命令을 안 내렸다고 證人이 아까 證言했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와같은 命令을 위반한 거군요? 證人이 그와같은 命令을 위반했어요. 命令違反이예요. 그렇지요?

○證人 安富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命令違反이 아니고 됩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지금 뭐 실탄을 분배하고 휴대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전부 사격을 하라고 다 이렇게 지시 내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張石和委員 다시 陸軍本部作戰教範과 증정作戰計劃指針으로 돌아가고 또 기본적인 상식으로 돌아가십시오 실탄 나누어 준 것은 됩니까? 發砲許容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證人 安富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때나 사격을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에 한해서 실탄을 분배한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11旅團本部에 朝鮮大에 실탄을 일부러 놓고 온 이유가 됩니까? 示威鎮壓할 때는 실탄을 사용하지 마라 해 가지고 놓고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證人이 도중에 실탄을 분배 했습니다. 그것은 발포를 허용하면서 알아서 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證人이 지금 그것을 正當防衛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崔鳳九委員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正當防衛는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철수하는 것입니다. 證人이 철수건의를 旅團本部에 했다고 진술했지요?

○證人 安富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했지요. 그것은 하나의 正當防衛行使고 自衛權行使입니다. 證人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건의를 한 것입니다. 撤收命令없는 철수를 못하지요?

○證人 安富雄 못합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撤收命令이 없으면 철수도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발포에 관해서 發砲命令이 없으면 발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證人이 그 당시까지 발포를 해야 될는지 철수를 해야 될지를 上部에 전의한 것입니다. 전의를 하니까 분명히 그 둘중의 하나를 證人이 받았읍니다. 그것이 뭐냐 철수하라는 命令을 못받고 발포하라는 命令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탄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崔 雄證人은 이 자리에 나와서 僞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 위가 누구냐 鄭鎬溶 特戰司令官입니다. 또 그 위가 누구냐 奎斗煥 그 당시 實權者입니다. 그와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鄭鎬溶司令官이나 또는 崔 雄旅團長이나 또 證人과 같은 大隊長들이나 다 이 자리에 나와서 僞證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證人 어떻습니까?

○證人 安富雄 저는 僞證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上級部隊로부터 사격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실탄을 나누어 준 것은 어떤 의미로서 지금 張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射擊을 하라 하는 것도 내포될 수가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때의 道廳狀況을 보았을 때에 그 버스를 저지를 하지 못하면 그 좁은... 1,000餘名이 앉아 있는 거기에서 數拾名의 部下가 그대로 死傷者가 날텐데 그것은 그러면 꽤참은 겁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射擊을 한 것이지요. 그런것이 필요할 때 쏘라 하는 것이 그러한 의도로 實彈을 부여한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 어제 金泳燁 證人이 나와서 證言한 사실 證人이 보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보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 내용 證人 알지요? 道廳앞

發砲狀況 金泳燁 證人이 소상하게 證言을 하고 있습니다. 金泳燁 證人은 東亞日報 그 당시 現場派遣 記者로서 客觀的인 第3者입니다. 그 사람이 市民 편에 설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軍隊 편에 설 사람도 아니고 客觀的으로 본 사실만 證言한 것입니다.

그 사람 證言에 의하면 그 당시에 道廳앞에서 證人이 보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 市民들이 太極旗를 휘두르면서... 그 자리에서 太極旗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5·6명이 5·6차례 그때마다 證人의 軍隊는 무자비하게도 그와 같은 非武裝市民들을 正照準해서 쏘았읍니다. 그래서 쓰러뜨렸읍니다.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證人이 목격한 바 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張石和委員 證人! 그 사실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못 보았읍니다.

○張石和委員 어제 나온 金一玉 證人의 證言에 의하면 金一玉 證人은 35大隊를 和順쪽으로 가는 그 쪽 道路에 있었기 때문에 못 보았다고 그랬읍니다. 분명히 證人이 道廳앞의 錦南路쪽에 있었지요?

○證人 安富雄 예.

○張石和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 거기서 道廳앞 좁지요? 가 보시니까 좁지요? 좁은 자리에서 그것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證人! 그게 말이 됩니까?

○證人 安富雄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책에 300m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 책에.....」하는 이 있음)

○張石和委員 證人 그것은 못 보고 필 보았어요?

○證人 安富雄 분수대에서 300m 떨어져 있을 적에 그 300m 앞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시고 계십니까? 張委員님.....

전부 차량으로 앞을 다 막았읍니다. 그런데 차량 앞에서 나와서 그랬다면 보이지만 차량 뒤에서 나오는 것을 제 눈이 어떻게 투시를 해서 그 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張石和委員 證人! 愛國歌 못 들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못 들었습니다.

○張石和委員 愛國歌도 못 듣고 또 그와 같은 상황도 못 보고 證人이 못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證人의 지금 證言을 도저히 우리가 믿기 어려운 바가 많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도 없지만 가사 證人이 못 보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發砲하면 안 되지요?

○證人 安富雄 무조건 發砲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狀況說明할 때 報告를 드렸습니다.

○張石和委員 아니 金泳燁記者가 얘기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發砲는 正當防衛도 아니지요?

○證人 安富雄 市民을 照準을 해서 射擊을 하면 그것은 正當防衛가 아니지요.

○張石和委員 또 아까 證人이 그 버스안에 있던 運轉士가 죽었다... 그것이 戒嚴軍에 의해서 射殺된 것이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것은 왜 그렇게 正照準해서 쏘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은 正照準 한 것이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그 버스는 證人의 部隊가 12時까지 撤收한다고 하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證人의 軍隊가 물러가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證人部隊가 사람의 人命을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분명히 그사람한테 正照準해서 안되지요? 바퀴를 쏘든지 또는 威脅射擊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습니까?

○證人 安富雄 맨 처음에 威脅射擊을 하고 그 옆에 있는 將校가 바퀴를 쏜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지요.

○張石和委員 그리고 證人이 옥상에서 證人部隊員들이 올라가서 아래를 향해서 射擊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저희는 상무관에 올라갔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니다.

○張石和委員 지금 조각계기와 證人이 대답한 그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옥상에 올라가서 掩護用으로 쏘았다. 그런데 掩護用이 아니에요. 이게 ...

어제 나온 被害者證人의 證言에 의하면 掩護用이 아니고 正照準해서 쏘아서 다쳤습니다. 그런 사제가 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없어요? 그러면 證人은 證人한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고 證人한테 유리한 것만 여기서 시인합니까?

○證人 安富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있는 것을 그대로 그 상황을 위주로 해서 證言을 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결국은 證人의 證言은 지금 崔 雄證人의 證言과도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證人의 上官인 崔 雄證人이 나와서 證人이 바로 發砲命令者이고 證人이 그 때 發砲命令者이기 때문에 證人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證人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安富雄 저희 大隊員들이 잘 못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안지겠습니까?

○張石和委員 그 당시 證人이 先任大隊長이었지요?

그 4個 大隊가 있었는데 4個 大隊의 大隊長들과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이 實彈分配도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또 發砲建議도 했고... 그렇지요?

○證人 安富雄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이 先任大隊長으로서 총체적으로 거기서 그 상황을 지휘를 해 가지고 發砲建議도 하고 撤收建議도 하고 發砲命令도 내리고 또 實彈分配도 한 것입니다.

崔 雄證人의 證言대로 한다면 證人이 결국 正當防衛가 안되는 集團的인 殺人行爲를 證人이 저지른 殺人罪의 主犯입니다.

그것을 證人이 자주 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證人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證人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 밑의 部隊員들한테 證人이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崔 雄證人은 證人한테 미루고 證人은 또 部隊員한테 미루고 이와 같은 비열한 그러한 指揮官의 태도를 작태를 계속 보일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제가 왜 제 大隊員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委員長 文東煥 이것으로써 마지막 質問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분명히 이와 같은 경우 撤收를 했어야 되는데 撤收도 안하고 거기서 發砲를 해서 54名이라고 하는 무고한 市民을 희생시킨 그러한 發砲集團 殺人責任을 證人이 질 그러한 각오가 되어있지요? 사실이 밝혀진다면

○證人 安富雄 잘 못했으면 제가 處罰을 받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約10分 동안 停會를 하겠습니다.

50分까지 돌아와 주십시오.

停會를 宣言합니다.

(21時38分 會議中止)

(21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安富雄證人에 대한 訊問을 계속하겠습니다.

民主正義黨의 鄭東鎭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은 15分이 됩니다.

○鄭東鎭委員 民主正義黨의 鄭東鎭委員입니다.

먼저 證人은 光州示威鎮壓作戰에 직접 參與했던 一線 지휘관으로서 그 當時의 상황을 客觀的으로 규명해야 하겠다는 歷史的인 召命感을 가지고 사실과 양심에 따라서 所信이고 分명한 答辯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에 證人의 部隊가 光州로 출동하였을때 兵力은 몇 명이었습니다?

○證人 安富雄 將校 43名 士兵 277名이었습니다.

○鄭東鎭委員 證人은 光州市內 騷擾鎮壓차 최초로 출동하기 이전에 上級部隊나 또는 다른 機關으로부터 光州狀況에 대해서 어떠한 情報나 謀報를 입수한 바 있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없었습니다.

○鄭東鎭委員 또한 證人은 어떠한 腹案을 가지고 光州示威 鎮壓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光州市에 들어가면 먼저 선량

한 市民을 보호하고 法과 秩序를 유지시키도록 最善을 다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먼저 宣撫放送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催淚彈을 쓰고 그다음에 主謀者를 連行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示威鎮壓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鄭東鎭委員 證人의 部隊가 光州에 투입된 이후에 光州市民들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시위양상이 격렬화하여졌습니다. 그 원인은 證人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證人 安富雄 글썽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警察이 示威鎮壓을 하다가 軍人이 들어와서 示威鎮壓을 하게 되면 警察 鎮壓方法과 軍의 鎮壓方法이 차이가 나니까 市民이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軍人이 과격 시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첫째 기인이 되고 두번째로는 流言蜚語도 기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東鎭委員 방금전에 同僚委員이 質疑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확인하는 뜻에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證人의 部隊가 車輛으로써 위험적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왜 실시하였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저희 大隊는 光州에 투입해서 車輛으로 위험 示威를 한 일은 없습니다.

○鄭東鎭委員 그러면 62大隊와 63大隊였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鄭東鎭委員 5月20日 夜間 23時頃입니다. 道廳 부근에서 證人의 部隊가 射擊을 실시하였다고 85年度 新東亞 7月號 光州事態 그 悲劇의 日間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安富雄 글썽 그 位置가 錦南路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밀고 밀리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총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鄭東鎭委員 20日 夜間 23時頃에 道廳앞의 어느 지점에 있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觀光「호텔」앞에서부터 이쪽 商業銀行앞 그 어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鄭東鎬委員 證人の 部隊는 光州에 투입시 實彈을 얼마나 휴대해 갔습니까?

○證人 安富雄 서울에서 저희가 출동을 할 적에 實彈은 個人當 60발씩 기준으로 해서 大隊에서 통합해 가지고 宿營地인 朝鮮大學에다가 保管을 해놓고 光州에는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鄭東鎬委員 최초 사격은 5月21日 13時30分頃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將校가 正當防衛 내지는 自衛權措置 일환으로 사격했다고 하는데 證人の 直屬 上官인 11旅團長도 이 자리에서 證人이 單獨으로 실시하였다고 證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證人の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글썽요 그것을 뒤 大隊長이 現場에 있었으니까 旅團長으로서는 大隊長이 單獨으로 결정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正當防衛라는 것은 어떤 指揮官이 射擊命令을 내려서 射擊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임박한 사람이 상황 판단을 해서 射擊을 하는 것이 바로 正當射擊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진입해 들어왔을 때에 그 버스에 사격을 하지 않고 즉 그 버스를 停車시키지 않았다면 그 주변 분수대 안의 1,000餘名이라는 兵士들이 피로에 지쳐서 앉아 있거나 누워있을때 그대로 압사한다면 수십명의 部下가 살상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먼저 實彈을 분배 받은 한 將校가 正當防衛로 射擊을 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結論的으로 어떤 사람이 射擊命令을 내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鄭東鎬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道廳앞에서의 責部隊에 긴박감 위압감 여러가지 착잡한 속에서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道廳 앞의 示威群衆의 數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證人 安富雄 몇 時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東鎬委員 그러니까 13時頃...

○證人 安富雄 13時頃 저희들이 밀리기 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밀린 다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東鎬委員 밀리기 직전이지요.

○證人 安富雄 밀리기 직전에는 示威群衆이 가지고 있는 장갑차와 5「트럭」 각종 버스로 완전히 戒嚴軍 사오백名과 대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로 한꺼번에 밀면 그대로 다 압사 당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이지요.

○鄭東鎬委員 그러면 4個大隊 空輸部隊의 兵力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證人 安富雄 저희 大隊같은 경우는 후송을 많이 갔기 때문에 한 220名 정도가 됐읍니다마는 編隊가 약 300名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鄭東鎬委員 그러면 證人の 그 당시 상황하에서 볼때 수와 勢에 있어서 위압감을 느낀 쪽은 어느 쪽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安富雄 위압감을 느낀 쪽은 戒嚴軍 쪽이 위압감을 느꼈읍니다.

○鄭東鎬委員 최초 발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초 발포가 있기 전에 證人이나 道廳 앞에 있던 다른 指揮官이 上級部隊에게 實彈을 지급해 달라든지 혹은 철수를 시켜달라든지 발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다른 大隊長들이 그러한 것을 건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鄭東鎬委員 그러면 證人은 그러한 사실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安富雄 다른 大隊長들은 건의한적은 없고 아까 狀況說明에도 報告드렸읍니다마는 13時에 밀려가지고 분수대 위에서 旅團에 狀況報告를 할 때에 이제 旅團은 4個 大隊가 道廳 벽까지 완전히 밀렸다 負傷者나 死亡者도 발생이 됐다 兵士들은 實彈을 달라고 아우성친다 旅團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불림없이 간략하게 報告를 했습니다.

○鄭東鎬委員 지난 번 聽聞會때에 그 당시 31師團長이었던 鄭 雄議員은 이곳 證言臺에서 尙武館에 道廳 부근입니다. 21日 31師團의

兵力은 배치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에 집결해 있을 필요도 없었고 또 배치하지도 않았고 實彈을 인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證人の 部隊는 5月21日 道廳 앞에서 實彈을 철수하는 31師團 兵力으로부터 획득을 했고 이것을 장교들에게 열발씩 1,640발을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1師團 兵力이 최초로 저도 道廳이나 尙武館에 왜 31師團 兵力이 있는가 의심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물았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륙을 할 때에 그것을 발견을 했으니까요.

兵士들한테 물어보니까 放送局을 경계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집결이 되어 있다가 철수하는 것이랍니다 하고 어떤 兵士가 報告를 합니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미운자식 딱 하나 더 준다는데 配屬 받은 部隊는 그냥 놔두고 자기 새끼만 전부 데리고 간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생겼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31師團은 그렇게 해서 철수를 하나 보다 명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을 해야지요. 그뿐입니다.

○鄭東鎭委員 알겠습니다.

그 實彈을 획득했고 분배한 사실을 上級部隊에 報告한 바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 자리에서 즉각 報告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버스」가 兵士들이 누워있고 앉아 있는 거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사격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錦南路에 떨어져 있었던 大型「버스」들이 또 車輛들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니까 戰場心理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戰爭터에서도 아무리 훈련된 部隊라도 사격 통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겁을 먹은 한 兵士가 먼저 사격을 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동시에 다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격 통제가 小部隊에서는 가장 어

려운 것인데 그러한 현상이 바로 道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大隊長들은 이러면 雙方間에 피해가 많겠다 생각을 하고 사격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사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얼드려서 쏘는 놈은 가서 발로 머리도 차고 궁둥이도 차고 하면서 사격을 중지시켜 가지고 1個 大隊는 水協 쪽으로 1個 大隊는 道廳앞으로 그 다음에 61大隊와 63大隊는 尙武館속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앞에서 들어오는 車들 阻止하기 위해서는 旅團에 配屬된 장갑차를 앞애다가 세워서 阻止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道廳이 계속 저희가 撤收할 때까지 小康狀態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鄭東鎭委員 방금 張石和 同僚委員이 質問한 바 있는 月刊朝鮮의 조갑제 記者와 「인터뷰」한 내용중에서 貴 部隊의 兵力을 道廳屋上에 올려서 엄호射擊을 실시한 바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安富雄 사실 엄호射擊은 그때는 하지 않았고 道廳에 들어 갔던 部隊의 일부가 觀測兵으로 示威隊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道廳 屋上에 下士官 2·3 名을 올려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鄭東鎭委員 貴 大隊의 兵力이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예.

○鄭東鎭委員 證人은 당시 正當防衛 내지는 自衛權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사실 그 狀況에서 自衛權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알아 봤더니 任務代行者라든지 또는 선량한 國民의 生命 身體에 대해서 급박하고 부당한 危害를 제거를 하거나 또 保護돼야 될 武器라든지 施設物 또 부당한 奪取 파괴 防火 이러한 행위를 阻止하기 위해서는 武器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 이 自衛權의 定義라고 생각을 합니다.

○鄭東鎭委員 다음 質問입니다.

지난 번 聽聞會에 同僚委員이 訊問함에 있어서 5月21日 午後 道廳建物 內部에서 戒嚴軍의 照準射擊으로 인하여 인근 建物內의 民間人과 示威衆의 多數가 死亡내지는 負傷을 많이 당했다고 한바 있습니다.

證人の 생각으로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글썽요. 그 거리가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道廳에 兵力을 屋上에 觀測兵을 올려 놓은 것 외에는 道廳에 兵力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民家 안에 있는 사람을 照準射擊하기란 어렵습니다. 환한데서 가명 안을 본다고 한다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射擊을 할 수가 없습니다.

○鄭東鎬委員 證人이 證人の 大隊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62大隊 狀況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음 質問입니다.

7旅團 33大隊 所屬인 최영신 中士의 良心 宣稱에 의하면 80年 5月24日 周南마을 뒷산에서 射殺된 청년 두 名은 같은 旅團인 所屬의 某少領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證人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라든지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글썽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大隊事項이 아닌데 부득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鄭東鎬委員 들은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證人 安富雄 聽聞會에 나온다고 해서 그래도 11旅團이기 때문에 隣接大隊니까 그 大隊長에게 이것이 요즘에 新聞紙上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國民의 관심이 集中되는 것인데 내가 現役으로서 聽聞會에 나가는데 이 문제는 꼭 質問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네가 아는 대로 나한테 알려주어야 國民이 조금이라도 그 의문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깐 그 大隊長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더 委員님들께서 調査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62大隊長으로부터 들은 바 까지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번에 崔 雄 證人이 나오셔서 가지고 설명하신 것과 大同小異합니다. 所臺洞입니다. 이 쪽으로 가면 光州이고 이 쪽으로 가면 和順입니다. 61大隊 저희 大隊는 所臺洞 뒷산에 이렇게 3個 地域

隊가 배치되어 있었고 大隊長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운 데에 62大隊가 3個 地域隊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軍事地圖에는 주 담으로 되어 있고 行政地圖에는 周南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周南으로 전부 통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周南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골짜기 넘어서부터는 63大隊 3個 地域隊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1日 道廳에서 철수해서 朝鮮大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所臺洞 周南마을로 旅團이 철수한다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旅團이 전부 철수를 합니다. 11旅團 3個大隊와 7旅團 2個大隊가 동시에 周南으로 이동이 되는데 22日 새벽에 周南地域이 골짜기 일대에 전부 집결이 됩니다. 아침에 旅團長으로부터 光州事態의 地方擴散을 방지하기 위해서 外鄕道路를 봉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所臺洞 이 앞에 61大隊 거기에 이어서 62大隊 63大隊順으로 埋伏을 서고 봉쇄를 실시하라 그리고 35大隊 「마이너스」 1個 地域隊는 저위에 너릿재 「터널」부근에서 埋伏을 서가지고 和順쪽에서 武器를 光州市內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바로 大隊는 이렇게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22日을 이렇게 埋伏地點을 선정을 하면서 埋伏場所에 전부 투입이 되었는데 22日 夜間 11時가 넘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쪽 개활지에서 62大隊가 埋伏하고 있는 地點으로 계속 射擊이 날아옵니다. 夜間이 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고 지역은 광활하고 또 夜間에 쫓아갈 수도 없고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두사람이 奇襲射擊으로 負傷을 당했습니다. 23日 大隊長이 1個 地域隊長에게 지시를 해서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搜索偵察을 해 보아라 해서 搜索偵察을 1個「팀」 즉 9分의1 名을 내보내서 搜索偵察을 했습니다. 搜索偵察을 해본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쪽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니다. 돌아오는 길에 光州에서부터 和順으로 가는 버스가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將校들이 손을 들면서 「버스」 「스름」하고 한번 소리를 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서서 檢問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대로 먼저 射擊을 하면서 질주를 해

버렸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 旅團이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 하면 마대 「샌드백」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封鎖線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지 못했던 것이 큰 이러한 不祥事를 일으키는 동기도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만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있을텐데 埋伏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한테 射擊을 하니까 여기다대고 集中射擊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車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을 했지요 그래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죽었느냐 戰鬪詳報마다 다 불리고 한테 몇사람이 죽었느냐 해서 이 旅團의 情報參謀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확인한 人員이 11名이라고 합니다. 11名이고 여기서 「칼빈」銃 1挺 M1銃1挺 無電機 1臺 實彈은 마대로 하나 約 1,200發정도 됩니다. 그리고 男子 두사람과 女子 한사람이 負傷을 했기 때문에 大隊長이 그 報告를 받고 근처에 있는 民家에서 「리어커」를 얻어서 빨리 「헬리콥터」를 요청해서 軍病院으로 후송시켜라 해서 旅團으로 보냈습니다. 旅團은 여기서 부터 約 1.5km 정도 됩니다. 여기 까지는 길이 편잡지만 周南마을 뒤에서 부터는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끌고 올라 가서 후송시켰다 하는 얘기가 62大隊長 얘기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鄭委員 시간이 지났습니다.

○鄭東鎬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의 歷史的 評價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상황을 規定할 수도 있습니다.

證人은 현장에서 직접 그 당시의 상황을 겪었던 一線指揮官으로서 그 당시 光州狀況이 왜 그러한 비극으로 까지 확산되어 갔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安富雄 글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光州市民으로 보았을 적에는 戒嚴軍이 너무 과격했다 이렇게 光州市民들이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또 우리 戒嚴軍 입장도 光州市民이 조금만 自製를 해주었으면 이러한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현장에 있었던 大隊長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총들이 좀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鄭東鎬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 辛基夏委員 訊問에 주십시오. 시간은 17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平和民主黨 辛基夏委員입니다.

證人께서는 5月18日 東國大學에서 光州로 옮기셨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東國大學에서 出發할 때 午後 3時 조금 지났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安富雄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午後 3時 조금 전에 特戰司令官 鄭鎬溶少將이 와서 指示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저는 旅團長님으로 부터 指示 받았읍니다.

○辛基夏委員 旅團長은 東國大學에 없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旅團長님이 왜 東國大學에 안 계십니까?

○辛基夏委員 證人! 證人은 1980年5월에 어떤 일을 했던 지금의 신분은 大韓民國의 陸軍大領으로서 이나라의 한 時代를 굶는 중요한 歷史的인 사실을 밝히는 이자리에서 證言을 하고있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歷史的인 사실을 밝히는 이 순간에 證人으로서 나와서 證言을 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진솔한 證言을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무나 무엄하고 너무나 외람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일개 國會議員이 아니요 國民의 代表者요 國民의 촉소기관인 國會에서 證言하는 것이기 때문에 訊問者의 訊問에 대한 答辯에서도 정중하고 진솔한 마음가짐으로 答辯을 해야 합니다. 물으면 그대로 答辯을 해야지 무슨 놈의 證人의 立場에서 訊問者에게 反問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訊問態度는 정중하게 하고 만 일에 그러한 度를 지나칠때에는 國會를 모욕하고 國民을 모욕하는 일로 간주하겠소!

證人! 그날 오후 3時 좀 지나서 당시 旅團長으로부터 光州에 내려가야 하겠다 하는 指示를 받았는데 그때 證人의 所屬 旅團長은 光州에 이미 내려가있는 33大隊와 35大隊의 힘만으로는 光州 示威群衆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證人の 大隊 소위 11旅團도 내려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말을 證人の 直屬上官인 旅團長은 證言을 했고 그 말은 바로 鄭鎬溶 特戰司令官으로부터 指示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旅團長도 證人에게 그러한 指示를 내립니까?

○證人 安富雄 그러한 指示받은 바 없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한 말은 한 사실이 없다?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그러나 特戰司令官이 바로 旅團長에게 그러한 指示를 했다고 여기서 證言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당시 33大隊나 35大隊는 光州 示威現場에 投入되기도 전의 狀況이었기 때문에 鄭鎬溶 特戰司令官의 旅團長에 대한 指示는 어떠한 의미였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證人께서는 여기에서 證言하시기를 5月20日 午後 1時이후頃の 光州示威鎮壓過程에서 部隊員들이 空輸部隊員들이 서있으면 市民들이 사오십歲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붙여서 무슨 말을 묻고 答辯을 안하면 거기에 또 是非를 붙이고 또 뒤편에 市民들이 와서 우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상당히 組織的인 어떠한 示威를 유발하는 것같은 態度를 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市民들의 數는 얼마나 많습니까?

○證人 安富雄 맨처음에 했던 곳 말입니까?

○辛基夏委員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5月20日 13時 조금후라고 아까 그렇게 證言을 하셨어!

○證人 安富雄 그런 것이 한군데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군데서 자꾸 일어났습니다.

○辛基夏委員 내가 13時이후頃이라고 물었어 요. 그때 頃을 말했어 요.

○證人 安富雄 그때 뭐 한 千餘名 가까이 됩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證人께서는 그 千餘名의 市民들이 하나의 組織化된 示威隊로 보셨습니까?

○證人 安富雄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 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게 組織的으로 된 것이 아니냐 지금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辛基夏委員 다음 5月21日 12時 조금전에 張炯泰 道知事의 市民에 대한 宣撫放送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12時까지 空輸部隊가 떠난다 그러니 自進解散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헬리콥터」로 그런 宣撫放送을 하고 知事가 돌아갔어. 그래 12時가 되어도 空輸部隊는 떠나지 않고 그런데 12時前에 그런 宣撫放送이 있을 때 市民들은 환호를 올렸다고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그런데 12時가 넘어도 안떠나고 1時頃까지도 안 떠났어요.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市民들의 示威는 空輸部隊가 있었기 때문에 示威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空輸部隊가 떠난다고 하니까 市民들은 환호를 했고 또한 空輸部隊가 오기 전 5月17日의 光州거리는 평온했고 5月18日의 午前도 평온했어! 그런데 空輸部隊가 옴으로 인해서 光州의 거리는 社會가 혼란스러웠고 殺戮의 거리가 되었고 피비린내나는 거리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戒嚴軍이라는 것이 이른바 社會秩序維持軍인데 社會秩序維持軍으로 온 空輸部隊때문에 光州는 더욱 社會가 혼란하게 되었고 피비린내나는 냄새가 가득했고 나라의 秩序가 오늘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證人の 견해는 어때요?

○證人 安富雄 글썽요. 그러한 空輸部隊가 있어서 示威가 격렬해지고 없어서 平和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는 저희 大隊長線에서의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辛基夏委員 아니 大隊長이라든가 中隊長이라든가 小隊長의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空輸部隊가 오기 전에는 示威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空輸部隊가 와가지고 示威가 생겼고 급기야 「에스카레이터」되어서 殺戮의 거리로 까지 번져서 이제 9년이 다 되어가

는 이 時點에까지 國家가 어지럽도록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證人 安富雄씨의 견해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證人은 大隊長이나 大領 安富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個人 安富雄으로서 이 證人席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安富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辛基夏委員 깊이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그래서 答辯을 못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 다음에 5月21日 1時半이 조금 넘어서 아까 同僚委員의 質疑에 500MD「헬」機 1臺가 와가지고 31師團 兵力을 실어갔다고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제가 500MD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辛基夏委員 아니 機種을 물으니까 500MD라고 그렇게 분명히 答辯을 했지요?

○證人 安富雄 500MD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탈 수가 없습니다. UH1H 아닙니까?

500MD는 操縱士예고 두사람밖에 탈수가 없는데요.

○辛基夏委員 그러면 機種을 분명히 압니까?

○證人 安富雄 UH1H일 것입니다. 1個 分隊가 탔으니까...

○辛基夏委員 겁니다 입니까? 분명히 압니까?

○證人 安富雄 예. UH1H입니다.

○辛基夏委員 1個 中隊가 탔습니까?

○證人 安富雄 1個 分隊입니다. 中隊가 아니고.

○辛基夏委員 1個 分隊... 그러면 그 1個 分隊兵力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證人 安富雄 尙武館쪽에서 뛰어 나왔습니다. 「헬」機가 오니까...

○辛基夏委員 그래서 아까 證人께서는 放送局을 警戒하던 兵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어느 放送局이라고 그러니까?

○證人 安富雄 MBC放送局이라고 그랬음

니다.

○辛基夏委員 MBC에는 20分의 1兵力이 있었는데 20日밤에 MBC가 불이 날 때 그 兵力은 市民들로부터 빵과 사이다를 얻어먹으면서 자기 部隊로 말하자면 MBC로부터 北쪽의 方向으로는 31師團이 좀 먼거리에 있지만 있고 東南쪽으로 道廳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서 道廳으로 갈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31師團 자기 部隊로 歸隊했다는 것이 光州市內의 公知의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MBC의 警戒兵이 자기의 部隊方向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가가지고 하루밤을 세우면서 體育館인 尙武館에서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證人은 같은 軍人으로써 더욱이 大隊長級에까지 있는 분으로서 이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최초에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지요. 「헬」機를 탈 때 처음 본 것입니다. 21日 13時 이전까지는 저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兵力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헬」機가 와가지고 그쪽에서 사람이 나오기에 저 兵力이 무슨 兵力이냐...

○辛基夏委員 됐어요. 部下로부터 들어서 알았다 그 말씀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결국 31師團에는 「헬」機가 나는 專門的인 知識이 없어서 證人이 말하는 「헬」機의 機種을 잘 모르지마는 여기 郷土師團에는 500MD 2臺가 있어 가지고 당시에 한臺는 고장이어서 수리중이었고 한臺만 가동중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師團長이었던 鄭 雄少將이나 그 이외의 將校들 또는 31師團 航空將校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없는 「헬」機로 自隊의 兵力을 실어갑니까?

더욱이 다른 사람의 아들은 안 실어가면서 없는 「헬」機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만 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證人은 모르는 것이지요?

○證人 安富雄 31師團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어제 任正福 大領도 불림없이 光州

市内の 80分の 5名을 放送局 및 主要施設에 配置되었고 撤收시키지 못해서 道廳地域에 撤收했다가 「헬리콥터」로 撤收를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實彈을 저한데 引繼해 주었다고 했던 사람도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辛基夏委員 됐어요.

證人께서는 證人이 직접 모르지마는 어제 任正福證人의 證言을 들어보니까 그때 證人이 보았던 것과 일치된다 그런 취지이지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날 1時半이 좀 넘어가지고 당시 道廳앞에 配置되어 있던 61, 2, 3大隊와 35大隊가 APC의 市民들의 攻擊을 받은 후에 道廳 正門 앞쪽으로 전부 모였다고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예,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將士兵 전부 모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將士兵이 다 혼합이 되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將校는 4大隊의 몇 명이나 되고 士兵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證人 安富雄 將校는 1個大隊에 한 40名線이니까 4個大隊면 160名 정도 됩니다.

○辛基夏委員 그때 實彈 몇 발을 나누어 주었어요?

○證人 安富雄 各 大隊 400發씩해서 10發씩 나누어 주면 되겠다 해서 各各 大隊 400發씩해서 將校들에게 10發씩...

○辛基夏委員 그러면 各 大隊長 責任下에 나누어 가졌습니까?

○證人 安富雄 大隊長이 직접 하지는 않고 大隊 作戰將校들이 받았지요.

○辛基夏委員 大隊長은 옆에 있고...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그러면 證人大隊는 80發 더 가졌네요?

○證人 安富雄 몇 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어제 나왔던 金一玉證人의 경우에는 道廳앞에 자기는 전혀 가지들 않았다는 것이예요. 자기는 道廳앞에서 和順가는 방향의 忠壯路入口쪽에 있었기 때문에 錦南路 일도 몰랐고 APC車가 지나간 후에

도 자기의 兵士들의 상당수는 道廳앞 분수대 쪽으로 갔지만 자기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大隊長들 立會下에 證人이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것도 僞證이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4個 大隊長 立會下에 말입니까?

○辛基夏委員 그렇지요.

○證人 安富雄 4個大隊 作戰將校들한테 주었으면 大隊長이 立會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辛基夏委員 大隊長이 없는데 作戰將校한테 주면 항상 立會하는 것입니까? 證人하고 이것을 가지고 말씨름하면서 시간보내기 싫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놔두고 어떻게 道廳앞까지 밀렸는데 道廳안으로는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道廳안으로 들어 가서 문잠가 버리면 市民들이 道廳안 正門까지 밀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空輸部隊員이 오기 전에는 아주 질서가 유지되었고 또한 空輸部隊가 퇴각한 후에도 光州市内の 모든 질서는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行政機關의 중요한 文書 하나 손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질서있는 市民들인데 證人들이 憎惡心을 아주 강하게 市民들에게 불어 넣어 주었고 市民들에게 害惡을 加했기 때문에 戒嚴軍에게 대항하는 것이지 秩序維持를 안하려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市民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證人들은 당연히 建物도 많은 道廳위로 들어가서 撤收를 했어야 할텐데 안하고 實彈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그 實彈을 가지고 對抗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證人 安富雄 지금 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道廳안으로 완전히 撤收를 해서 朝鮮大學으로 빠져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辛基夏委員 朝鮮大學이 아니라 道廳안으로 들어갔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證人 安富雄 35大隊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辛基夏委員 아니 그때 바로 들어갔으면 될 것이 아니냐...

○證人 安富雄 거기까지 作戰上 후퇴입니다.

○辛基夏委員 그것은 그렇고 證人은 趙甲濟記者와의 月刊朝鮮「인터뷰」에서 위의 주위의 建物 말하자면 전일「빌딩」수협「빌딩」「카톨릭

센터」 그 다음에 觀光「호텔」등등의 主要 建物の 육상에 사람을 配置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下向射擊도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趙甲濟記者와의 「인터뷰」 내용이 虛偽입니까 여기에서 證言 내용이 虛偽입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게 많은 建物에다가 兵力을 配置할 시간도 없었고 兵力도 없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럼 配置한 사실이 없었다...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마지막 質問을 해주세요.

○辛基夏委員 예. 證人께서는 이 5·18光州民主化運動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鎭壓했다는 功勞로 1980年6月20日 勳章을 받으셨지요?

○證人 安富雄 勳章은 못 받았습니다.

○辛基夏委員 國務總理表彰을 받으셨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辛基夏委員 그것도 敍勳에 가까운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證人은 지금도 國務總理의 表彰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은 개인적으로 上級指揮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辛基夏委員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소위 光州 5·18市民들의 示威를 民主化運動으로 全國民이 인정을 해서 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마당에 거기에 民主化運動에 가담했던 市民들에게 살육을 가 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勳章을 받은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質問은 이것으로 끝나고 證人의 答辯만 기다리게됩니다.

아울러서 證人의 旅團長에게 언제 道廳앞에서 交戰을 해서 얼마만큼의 實彈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쏘았고 누가 指示해서 쏘았고 어떠한 戰果를 올렸고 얼마만큼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언제 報告했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將校들 한테만 實彈을 주었는데 將校들은 指揮官의 發砲指示가 없어도 銃을 자기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것인지 小尉이상은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答辯에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旅團長한테 21日 상황은 朝鮮

大學校에서 撤收해서 바로 所臺洞으로 撤收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자세하게 報告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周南마을에서 그때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새벽입니다. 旅團長에게 직접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質問을 하셨던 事項이...

○李海瓚委員 將校들은 임의로 쏠 수 있느냐고요?

○證人 安富雄 將校를 믿어야지요. 將校는 指揮者니까 士兵들보다는 정확하게 狀況判斷을 할 수가 있다 얘기지요.

○辛基夏委員 指揮官과 指揮者는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證人 安富雄 예.

○辛基夏委員 그러면 下士官도 士兵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指揮官과 指揮者는 차이가 납니다.

○辛基夏委員 차이가 난다는 말은 내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指揮者가 아니라 하더라도 士兵이 아닌 下士官도 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士兵과는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 安富雄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下士官보다 將校가 더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저희 部隊에서는 通常 訓練이라든지 作戰에 나갈 적에 警戒用 實彈을 휴대토록 할 때에는 將校들에게만 警戒用 實彈을 휴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將校들은 임의로 쏠 수 있느냐고 質問했습니다.

○證人 安富雄 將校들도 마찬가지로. 將校들도 正當防衛를 하게 되면 射擊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趙洪奎委員 集團 發砲는 將校들이 한것이지요?

○證人 安富雄 대부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辛基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訊問해주십시오. 15分이 割當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民主黨 李仁濟委員입니다.

證人! 證人은 80年5月 光州에 任務를 받고 示威鎭壓을 하러 갔을 때 陸軍中領 大隊長이고 당시 순수한 軍人이라고 自負했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は光州에서作戰을 할 동안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證人이 위로 부터 命令받은 事項을 그대로 執行했을 뿐이지 證人에게 부여된 任務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過剩行爲를 해서 市民에게 被害를 입혔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고 自負하고 있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틀림없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그로부터 한 9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證人の 階級도 지금은 陸軍 大領이고 ...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證人は 어떤 政治같은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軍人이라고 自負하고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政治에 관심이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은 지금 證人이 80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가장 용감무쌍한 空輸部隊 大隊長이다 그 심정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本委員이 확인한 것처럼 證人は 任務를 부여받은 것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을 잊지 말고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道廳앞 圖面을 칠판에다가 올려놓아 주세요. 그것을 올려놓으시면서 證人이 道廳앞에 沮止線을 치고 거기에서 指揮하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日時가 어떻게 됩니까?

5月20日 몇時쯤에 道廳앞 錦南路 거리에 證人部隊를 沮止線을 치고 거기에서 指揮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그 표시된 위치에... 5月20日 몇時쯤입니까? 대략 얘기해 보세요.

○證人 安富雄 정확한 時間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李仁濟委員 대략 이야기 해 보세요. 證人! 資料보지 말고 그 당시 5月20日 記憶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이 한 15時頃쯤 됩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5月20日 午後 3時...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지금까지 證言한 것으로 봐서 저 沮止線이 크게 변동이 안되고 다음 날인 5月21日 午後1時 가까이 그 沮止線을 유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ARC 「뱅크」가 뭐

어 나올 때까지... 그렇지요? 그 沮止線 맞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거기서 指揮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證人 安富雄 이 쪽이 됩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5月 20日 午後3時부터 旅團 CP는 朝鮮大學校에 있었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旅團CP는 무엇으로 교신했습니까? 無電으로 했습니까? 證人 옆에는 作戰 將校하고 無電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狀況이 변할 때마다 또 어떤 任務를 부여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또 上部로 부터 任務가 부여될 때마다 無電이 수시로 열려서 교신이 되었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거기서 전부 잠을 잤고 했는데 21日 새벽 3時부터는 좀 小康狀態에 들어가 휴식도 했다고 했지만 사실 全部隊가 거의 잠을 못 잤지요?

○證人 安富雄 못 잤습니다.

○李仁濟委員 또 전 날 示威狀況으로 봐서 證人 部隊 兵力을 가지고는 그 저지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지요? 證人!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崔 雄旅團長은 지난번 證言하기를 문제의 21日에 자기는 旅團CP는 朝鮮大學校에 있었지만 戰敎司 狀況室에 아침 일찍 부터 가서 계속 철수명령이 내려지던 午後4時 가까이까지 戰敎司 狀況室에 있었다고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現場에서 鎮壓作戰을 하고 있던 바로 61大隊長인 證人으로서 부터 자기 旅團本部를 통해 가지고 發砲許容要請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時間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證人이 그 時間을 얘기해 주어야 되겠네요. 언제 發砲承認要請을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旅團의 旅團長에게 發砲承認要請을 한 것이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 틀림없이 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예. 제가 아까 狀況說明 때 밀려가지고 분수대에 갔을 때 狀況報告를 旅團에게 할 때...

○李仁濟委員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APC 車가 나와서 저지선이 분수대 뒤로 무너졌을 때 報告하기 전에는 證人은 發砲承認 要請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이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旅團本部에 이 저지선은 참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한 두時間도 아니고 전 날 午後3時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時間이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잠도 잘 못자고 또 상당히 負傷者들도 있고 피로했을 텐데... 이것 어떻게 좀 철수를 해달라 이런 要請을 안해봤습니까?

○證人 安富雄 바로 그 要請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그러니까 APC車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1日 午後1時 전에 그렇게 급박한 狀況이 아닐 때 철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要請은 안해봤습니까?

○證人 安富雄 철수를 要請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李仁濟委員 어려운 상황이다...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道知事가 12時까지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李仁濟委員 證人!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21日 11時이후를 이야기 하지 말고... 11시에 道知事가 放送했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왜냐하면 崔 雄旅團長은 21日 아침 일찍부터 戰敎司狀況室에 왜 갔느냐 하면 尹興禎戰敎司令官한테 空輸部隊撤收命令을 내려달라고 조르려고 했다고 證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旅團長이...그렇다면 일선에 나가 있는 大隊長으로부터 "도저히 道廳앞에서 더 이상 沮止 못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空輸部隊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어떻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하는 報告가 안 들어갔다면 旅團長이 21日 아침 일찍부터 자기 CP도 버리고 戰敎司狀況室에 가 가지고 尹興禎戰敎司令官한테 이것 빨리 撤收命令을 내려달라

이렇게 조를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데 證人은 그렇게 撤收命令을 내려달라고 旅團本部에 建議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 참 알 수 없는 일이네요.

○證人 安富雄 그런데 撤收命令을 建議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大隊級隸下의 撤收命令을 하고 안하는 것은 上級 指揮官이 隸下部隊의 狀況報告를 받고 그것을 판단해서 指揮官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면 - 좋습니다. 證人! 그러면 證人이 20日 그 沮止線을 친 이후에 21日 아침 狀況까지 狀況報告를 하면서 상당히 이 沮止線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報告는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런 報告를 받고서 崔 雄旅團長이 빨리 더 上級部隊로부터 撤收命令을 받아내서 우리 空輸部隊의 安全을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戰敎司 狀況室로 갔다 그렇게 說明이 되겠네요?

○證人 安富雄 그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그러면 21日 午後1時頃에 圖表에서 보듯이 市民側으로부터 APC裝甲車가 나와가지고 몇 名을 쫓면서 분수대를 들었었지요? 35大隊쪽으로 돌아나갔다고 그랬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서 그후에 61大隊나 62大隊 또 勞動廳쪽에 있던 63大隊도 다 沮止線이 분수대 앞쪽으로 다 물렸습니까?

○證人 安富雄 예. 다 물렸읍니다.

○李仁濟委員 이것은 바로 엇그제 證人으로 나온 金泳燁記者가 道廳 3層 知事室 복도에서 그 狀況을 찍은 것인데 이것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갖다 봐요. 이 寫眞을 보면 분수대 넘어서 沮止線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 안쪽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沮止線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APC가 나온 이후에 61大隊 62大隊 63大隊 그리고 35大隊가 분수대뒤로 混合編成이 되어서 이루어진 寫眞 맞습니까? 맞지요? 대개 그런 형태로 隊伍를 다시 정비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여기 분수대가 잘 안보이네요.

○李仁濟委員 道廳正門 바로 앞에 部隊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寫眞을 보면 상당히 隊伍가 정연하게 비록 沮止線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編成된 沮止線이지만 앞에는 11空輸의 裝甲車 2臺가 앞에 버티고 서 있고 그뒤로 空輸兵力들이 전부 도열해서있고 또 道廳안에도 空輸部隊 일부가 있었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그렇게 정연하게 서 있는 그런 狀況에서 31師團 兵力을 신고간 「헬」機가 어디에 내렸습니까? 저 圖面을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證人 安富雄 여기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道廳안이 아니고 광장입니까?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광장에서 내렸다. 證人!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겠는데 아까 우리 張石和委員님도 質問하신 月刊朝鮮 昨年 7月號 趙甲濟記者와 「인터뷰」한 大隊長이 證人 아니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63大隊長 조창구中領이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틀림없지요? 63大隊長 조창구中領이 「인터뷰」에 응했던 것 證人도 알고 있지요?

○證人 安富雄 글썽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도 이 「인터뷰」에 응한 일이 없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 옆에 있었읍니다.

○李仁濟委員 옆에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기 어려운 모양인데 大隊長中의 하나는 틀림없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旅團은 旅團에서 實彈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警戒用實彈까지도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實彈이 전부 朝鮮大學에 있었다. 그런데 31師團 「헬」機가 道廳에 내렸을 때 그 實彈을 갖고 왔다. 그러면 그 「헬」리콥터는 31師團 兵力을 가지고 후퇴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實彈은 바로 朝鮮大學校에 보관하고 있던 11空輸의 實彈이 그 「헬」機로 실려와 가지고 그것이 證人이 이야기한 것처럼 隸下 將校

下士官들한테 분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證人이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趙甲濟記者와 大隊長이 「인터뷰」한 것은 證人이 시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判斷이 그래요.

그 다음 그 實彈을 분배해 줄 때 證人이 제일 先任大隊長이었다고 그러니까 證人이 지휘를 했습니까? 實彈을 주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해라 이렇게 무슨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저희 大隊에 대해서는 제가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위급시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李仁濟委員 危急時에 사용해라... 證人! 지금 隊伍를 이루어가지고 作戰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作戰時에는 證人이 현지에서 指揮하고 있는 最高指揮官인데 위급한 상황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正當防衛에 그때에 사용하라고 했읍니다.

○李仁濟委員 이것보세요 證人! 正當防衛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證人이 그 당시에 그런 것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위급한 경우에 사용해야 된다... 이럴 때 그 위급한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말입니다.

隸下部隊를 메리고 證人이 最高指揮官으로서 作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證人! 오래동안 軍生活 안했습니까? 위급하나 안하나를 各個 兵士들이 판단해 가지고 사격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지 않습니다.

○李仁濟委員 위급한 경우에 쏘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것은 證人이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最高指揮官이... 그러면 지금까지 證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證人은 정말 위급하다 사격을 할 순간이다 해서 사격명령을 안했는데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이 指揮하던 61大隊 兵力은 그렇게 鳥合之卒입니까? 證人 그렇게 空輸部隊 밑에 隸下 支隊長이나 이런 兵士들을 그렇게 모으해도 되겠어요?

○證人 安富雄 그런데 방향을 지금 委員님

자꾸 이상하게 유도할 해 나가시는데요.

○李仁濟委員 유도에 빠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證人!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합니다.

20師團兵力이 增強되어서 온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證人 安富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20師團兵力이 현장에 增強 投入하려고 시도한 사실 모릅니까?

○證人 安富雄 그것은 旅團參謀長으로부터 지시를 들었습니다. 20師團과 교체할테니까 「헬리포드」 場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서 「헬」機가 실제로 와서 실제로 투입하려고 하다가 간 사실 알지요?

○證人 安富雄 예.

○李仁濟委員 軍 全體狀況은 절대로 軍이 光州에서 떠나지 못한다. 20師團兵力이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光州를 死守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20師團兵力이 그날 午前에 도착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實彈이 또 證人은 부정하지만 朝鮮大學校에 있던 11旅團의 實彈이 證인도 모르는 사이에 「헬」機로 실려져 왔을 때에는 旅團 그 이상 指揮部로부터 이 實彈을 갖고라도 死守해라 그리고 20師團兵力이 중강이 되었으니까 절대 光州는 市民들한테 포기할 수 없다. 이래서 저 上部로부터 發砲指示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證人은 21日 상황말고 證人 兼 下兵力이 市民을 죽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證人 安富雄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이 光州에서 활동하던 기간 중에 가장 市民이 다친 市民이 殺傷당한 사고가 그날 있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지마는 證人은 證人이 부여받지 않은 임무를 행해서 市民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證人의 部隊가 21日 하여튼 市民을 얼마나 되었던 살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그 殺傷한 任務는 證人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上部로부터 부여받은 任務이지 證人이 판단해가지고 마음대로 또는 證人이 統制하고 있는 兼 下指揮官이 證人統制도 안받고 마음대로 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下級指揮官이 證人이 現場에서 指揮하

고 있는데 證人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서 下級指揮官에게 發砲를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發砲를 했다고 한다면 證人 솔직히 말해서 그때 處罰을 받아야지 지금 이렇게 現役으로 勤務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李仁濟委員 이상으로 本委員의 證人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時間이 다 갔습니다. 朴燦鍾委員!

○張石和委員 證人이 證言을 거부하고 있어서 委員長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아니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李仁濟委員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朴燦鍾委員 質問해 주세요.

○朴燦鍾委員 委員長! 좀 發言權 주세요.

○張石和委員 證言拒否로 證人을 告發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狀況을 제가 議事進行發言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張石和委員 지금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辛基夏委員 李仁濟委員과 本委員이 證人에게 이 月刊朝鮮 88年度 7月號의 202 「페이지」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자기가 이와 같이 趙甲濟記者와 對談을 안했다고 한다면 證人 얘기대로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대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證人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拒否하는 것은 證言拒否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證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히 證言拒否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鄭 雄委員께서는 이 證言中 그 당시에 31師團으로부터 實彈을 보급받은 일이 없다. 31師團이 道廳 앞 尙武館에 간일도 없다. 그 31師團은 MBC를 警戒하다가 그대로 師團本部로 후퇴를 했다 철수했다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崔 雄旅團長이나 證人이나 다른 大隊長들은 모두가 다 짜고 그것은 31師團이 MBC로부터 철수를 하다가 중간에 尙武臺에 있으면서 남은 실탄을 바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僞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趙甲濟 記者와 「인터뷰」한 그러한 사람을 불러다놓고 對質訊問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대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證言拒否니까 여기에 관해서 委員長께서 證人에게 證言拒否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서 證言拒否면 우리 特委에서 證言拒否罪로 告發해야 됩니다. 그것은 委員長의 義務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證人! 이름을 지금 대시든지 아니면 證言拒否를 인정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하세요.

옆에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대든지 아니면 證言拒否를 받아들이든지...

○證人 安富雄 예. 趙甲濟記者하고 저하고 林守元 大領하고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李海瓚委員 두사람 가운데 그 答辯은 누가 한 것이예요?

○證人 安富雄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거기에 관해서 그러면 이 「인터뷰」내용에 관해서 林守元 大領이 答辯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證人 安富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중요한 대목이니까 보여드리고 答辯을 듣지요.

○張石和委員 이것 좀 보여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사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대목의 사실을 알고 넘어갑시다.

○張石和委員 이것은 31師團의 명예를 위해서도 證人의 僞證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委員長 文東煥 여기서 證言拒否하는데서 나온 상태니까... 아까 대답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시고 대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與野할 것없이 사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이니까 아까 대답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까 자주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참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場內騷亂)

○張石和委員 證人! 어떻게습니까? 그와 같은 陳述을 누가 한 것입니까?

證人이 한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예. 제가 한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證人과 이미 채택된 趙甲濟記者와 鄭 雄委員과의 3者 對質訊問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幹事를 통해서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無所屬의 朴燦鍾委員 訊問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7분이 됩니다.

○朴燦鍾委員 安富雄大領! 나 朴燦鍾委員입니다.

證人께서 조금 상기되신듯한데 침착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質問... 證人이 지휘하는 大隊가 19日 새벽에 光州에 진입했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로부터 21日 午後 한時半 前後해서 道廳 앞 錦南路에서 이른바 發砲行爲가 있기 직전까지의 證人이 지휘한 部隊가 취한 일련의 作戰 이것은 어떻게습니까?

正常的 鎮壓이라고 證人은 확신하십니까? 公用「터미널」 그리고 錦南路 일원에서 진행된 作戰이 正常的인 - 鎮壓이었었느냐 이 말입니다.

○證人 安富雄 正常的으로 鎮壓을 하려고 했습니다. 正常的으로 鎮壓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 강렬하게 示威鎮壓部隊보다도 示威隊가 더 많고 또 示威鎮壓部隊의 장비보다도 示威隊의 장비가 더 많은 그러한 기현상의 鎮壓指揮作戰이 있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部分的으로 非正常 鎮壓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18日 새벽에 투입된 特戰司 산하의 다른 部隊가 證人部隊보다도 하루 앞에 투입됐던 部隊도 이러한 완벽한 正常鎮壓이 안됐다고 證人은 마찬가지로 보시지요?

○證人 安富雄 글썽 그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朴燦鍾委員 문제는 당시 戒嚴總司令官이었고 陸軍參謀總長이었던 李煥性證人이 바로 그 證言臺에서 18日 새벽에 투입되기 시작한 空輸部隊의 21日 이른바 集團發砲 이전까지 사를

낮밤의 初期鎮壓이 過剩鎮壓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證人에게 다음으로 묻습니다.

空輸部隊의 訓練敎範에 鎮壓棒 사용방법이 어떻게 記載되어 있습니다.

제가 證人의 기억을 돕지요. “鎮壓棒을 사용할 때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충격을 크게 주는 부위를 깨뜨린다. 예를 들면 어깨쪽지 상박부 대퇴부 그리고 머리를 때리지 말라.” 대개 이렇게 鎮壓棒 사용방법을 敎範에 가르치고 있지요?

○證人 安富雄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리고 훈련도 대체로 이렇게 했습니까?

○證人 安富雄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나 머리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鎮壓對象인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鎮壓해야 할 장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쇄골부분을 때린다고 하는 것이 움직이다보면 머리같은데 맞기도 대단히 쉽다 그런 위험도 많다고 하는 것도 證人께서는 인정하시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80年3月 당시 首都警備司令官이었던 現大統領인 盧泰愚少將이 주재한 충청부대장 회의록 1,14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陸軍에 있어서 소요와 暴動의 鎮壓 성격과 그 鎮壓을 위한 作戰目標裝備가 다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空輸部隊의 訓練規範에 따른 訓練內容은 示威 騷擾鎮壓概念의 訓練을 받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 暴動鎮壓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이 文書에서도 분명합니다.

證人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作戰의 성격은 우선 攻勢的 鎮壓을 해야 된다고 作戰目標를 突擊 瓦解 再集結을 不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하고 輕武裝을 해야 되고 輕武裝하는 것은 機動에 유리하다” 아까 證人의 證言중에서도 錦南路에서 앞으로 나갈 때 체포까지 할 그러한 兵力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분쇄 鎮壓棒 휴대해서 鎮壓棒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충청部隊長會記錄에도 隸下各 충청部隊 여기에는 당시에 特戰司令官이었던 鄭鎬溶將軍 20師團長이었던 朴俊炳少將 그

리고 空輸特戰團 隸下の 各 旅團長들이 이 會議에 참석해서 이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空輸部隊의 訓練基本內容이 暴動鎮壓概念에 맞추어서 訓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렇기 때문에 저는 證人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過剩鎮壓이 아니었나 따라서 그 發砲도 正當防衛였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저 個人的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선 證人은 철저히 示威騷擾의 수준 더군다나 그당시 5月 17日 空輸特戰團이 部隊配置하기로 결정된 그 시점에 있어서 光州는 완전히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證人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證人 安富雄 모르겠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은 모르시는 것이 옳고 또 모른다고 對答해야 됩니다. 證人은 다만 命命에 따라서 거기에 配屬됐을 뿐이니까 17日 현재로 완전히 평온했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空輸大隊인 33·35大隊가 투입되던 18日 새벽녘은 더더구나 조용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제가 왜 證人이 과잉진압이 아니고 發砲行爲도 正當防衛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 하느냐 하면 證人과 證人部隊의 장병들은 敎範대로 훈련받고 그 敎範에 따라서 평소의 기합도 그 敎範訓練內容과 같은 기합을 받아왔기 때문에 證人과 證人部隊員의 주관으로는 그것이 결단코 과잉행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證人은 9年前 일이고 이제 陸軍의 大領으로서 아까 제가 휴게실에서 잠시 물어보니까 大領이 되신 지 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將軍進級을 바라보아야 할 軍의 가장 高級將校의 서열에 들어섰는데 도대체 空輸特戰團의 基本任務가 敵陣에 들어가서 諸般任務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敵陣에 투입되기 전에는 敵陣에서 上陸하거나 잠입해오는 그런 「게릴라」에 대한 對抗部隊의 임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바로 여기에 證人은 過剩行爲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發砲行爲가 正當防衛 범위 안에서의 發砲行爲였다고 하고 光州市民과 우리 野團委員들은 이것을 過剩行爲라고 하고 過剩發砲行爲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단순 示威의 可能性이 있는 自國民이 살고 있는 地域에 敵陣 내지 敵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高度의 폭동훈련을 받은 空輸部隊가 光州에 투입됐다는 그 자체가 光州市民과 우리 全體國民의 民主化 熱氣에 혼동상태를 가지고 오고 끝내는 이 悲劇이 오고 證人이 불명예스럽게도 이 證言臺에서 거게 된 原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安富雄 글썽요. 저는 軍人이니까 그러한 戰略的인 면으로써 部隊를 투입하고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당시 大隊長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 對答이 저는 가장 精確한 對答이고 또 證人의 당시의 심경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저는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證人의 그 對答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진실은 결국 鎮壓行爲 또는 發砲를 正當防衛 범위 안에서 發砲하느냐의 與否 이 모든 것이 敵陣에 투입되는 空輸部隊의 暴動 鎮壓概念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條件反射的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 部隊를 光州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 發砲도 사전에 이미 예고되고 包括的으로 지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證人과 證人의 隸下大隊 우리의 장병들은 충직한 命命을 그런 의미에서는 수령하고 그 命命을 단순히 기계 同質적으로 시행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空輸部隊員들도 결국은 光州抗爭의 저는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安富雄 사실은 저도 光州事態에 대한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 왜 示威 鎮壓 訓練만을 전문으로 받고 훈련되어 있는 7·8個의 空輸旅團兵力과 거의 맞먹는 陸軍

20旅團이 있는데도 이 20師團을 최초로 光州에 투입하지 않았고 또 놀라운 것은 17日 현재 당시 全羅南北 戒嚴責任을 맡고 계시던 戰敎司 司令官 尹興禎將軍이 현재의 光州의 평은상태는 17日午後 내지 子正 현재의 평은 상태는 절대로 空輸部隊나 여타部隊의 增減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 地域의 戒嚴責任者로서 兵力要請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실까지를 證人은 알 수 없었지요?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런데 결국은 이와 같이 暴動 鎮壓概念의 훈련을 받고 敵陣에 투입되어야 할 空輸部隊가 光州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 투입은 결국 지금까지 정장을 한 우리 稅金으로 유지되는 陸軍의 基幹高級將校가 여러명이 이 證言臺에 있습니다. 이 모든 證言을 종합하면 결국은 空輸部隊 投入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統治權이 行政權이 實質적으로 명목상의 大統領인 崔圭夏씨와 實質的 軍을 배경으로 하는 行政權의 實勢를 장악했던 全斗煥將軍 일파에 의해서 實質的 行政權이 장악되어서 統治權의 二分化 현상이 있었고 따라서 이 實勢를 장악한 全斗煥將軍 일파에 의해서 그들의 意思決定過程을 통해서 空輸部隊가 光州에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證言臺에는 마땅히 당시 保安司令官이고 軍의 實勢의 核의 核인 全斗煥 당시 保安司令官 特戰司令官이었던 鄭鎬溶將軍 戒嚴總司令官이었던 李煥性將軍 戰敎司令官이었던 尹興禎將軍 당시 31師團長이었던 鄭雄將軍 또 戰敎司司令官이었던 蘇俊烈將軍 기타 證人이 속하고 있던 各 空輸特戰團의 諸旅團長들을 이 證言臺에 집합시켜서 상호 對質 審問過程을 통해서 왜 空輸部隊가 투입되지 않을 光州地域에 투입되었는가를 밝히는 것 외에는 더이상 이 特委가 이 真相糾明을 접근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9年前의 單純命命을 수령했던 大隊長이었던 安富雄中領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將軍을 문턱에 바라 보고 있는 大領인 그래서 軍의 作戰 및 軍政까지도 충분히 익혔을 만한 그 經歷에 입각해서 저의 이 견해에 대해서 安

富雄大領의 견해를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 안해 보았습니다.

○朴燦鍾委員 이 證言臺에 서시기 위해서 要圖를 열심히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고 또 軍人이기 이전에 한 市民으로서 諸般 選舉의 有權者로서 投票權을 행사하셨지요?

○證人 安富雄 했습니다.

○朴燦鍾委員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安富雄 제가 이 證言臺에 나와 가지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은 現場에서 고생했던 당시 大隊級 以下 將兵들에 대한 그러한 노고는 사실 수모로 돌아가고 9年間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의 實相을 낱낱이 전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이러한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제 자신이 서글퍼지고 내 부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불이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그러한 의도로써 여기서 證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朴燦鍾委員 證人 좋습니다.

18일부터 21日 1時30分 전후까지의 초기 過剩鎮壓이 결국은 光州市民들로 하여금 抗爭을 불러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당시 空輸團側의 鎮壓측에 있었던 證人들은 결사적으로 21日 1時半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否認에 否認을 거듭하는 그런 인간적 충정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의 悲劇을 證人의 立場에서 보았을 때는 空輸部隊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 투입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후 이것이 바로 잡히고 歷史에 어떻게 기록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證人이 이 證言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이상의 노력을 軍人으로서 한 市民으로서 하는 것이 光州市民에 대한 보답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聽聞會에 出席해야 할 全斗煥씨가 證人으로 出席하지 않았고 제가 午前에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委員長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同行命令狀 執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證言臺

定法 소정의 절차에 충실하지 못해서 執行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聽聞會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委員長께서 4黨 幹事들과 어떠한 협의의를 거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政府 與黨은 오늘 이 聽聞會를 끝으로 모든 調查日程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순간인데 安富雄大領을 앞에 놓고 全斗煥將軍의 證言없이 우리가 어떻게 光州市民의 한을 풀 것이며 절대 다수의 선량한 空輸部隊員들의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순간에 委員長께서 단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이 聽聞會를 끝내고 全體會議을 소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저의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 문제는 우리 계속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訊問은 民主正義黨의 李敏燮委員입니다.

8分 할당이 되었습니다.

○李敏燮委員 民正黨 李敏燮委員입니다.

가다 가다 보니까 제 시간이 줄어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중에 月刊朝鮮 趙甲濟記者가 쓴 책에 대해서 꼭 읽어 내려갈 때 100% 그것을 확인하고 제가 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서 지금까지 나온 사항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21日 下午 1時頃 그때 부터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31師團兵力이 그 직후에 철수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安富雄 예.

○李敏燮委員 그러면 실탄을 장교들끼리 나누어 가진 시간은 몇 時쯤 됩니까?

○證人 安富雄 「헬」機가 떠난 다음에 바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니까 「헬」機같은 것이 한 時 상황열어진 부터 그 직후 아닙니까? 얼마나 경과되었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지요 그 직후입니다.

○李敏燮委員 한 30分 이내지요? 지금 月刊朝鮮의 趙記者가 쓴것을 보면 두시에 31師團

에서 실탄을 「헬리콥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배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쏘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차가 나는데 그것을 아까 證人께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僞證이 됩니다. 두 時에 31師團에서 실탄을 가져온 것으로 배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 時 직후에 실탄을 나누어 쓴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버스가 드려오기 이전입니다. 한 時 직후입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면 아까 月刊朝鮮에서 쓴 趙記者의 시인한 부분 이것은 분명히 이자리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日 下午1時頃에 車들이 밀려 오고 하면서 道廳부근 옥상에서 示威群衆에게 위협사격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1時 직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裝甲車가 밀고 오고 「버스」가 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發砲가 시작되고...

○證人 安富雄 모르겠습니다. 저는 1시에 저쪽에 밑에 있어 뒤로 분수대쪽으로 뛰어 올라올 때 됩니다.

○李敏燮委員 이것도 趙記者가 쓴 것을 보면 1시부터 여러가지 發砲가 일어난 그 상황에 道廳부근 옥상에 示威群衆에게 위협사격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자리에서 해야 僞證이 안됩니다.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뒤에서 뛰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兵力이 道廳에 올라갈 兵力도 없었고 앞에서 전부 경제 兵力도 부족해가지고 그앞에 전부 있었읍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것이지요?

○證人 安富雄 예. 그렇습니다.

(「아까 是認했어요!」하는 이 있음)

○李敏燮委員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訊問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證人이 몇時間씩 앉아서 여기에서 訊問하면서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시인합니까 시인합니까 해가지고 僞證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訊問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訊問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趙甲濟記者가 쓴 것중에 사실과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지금 여러 사람의 證言으로 들어난 것 예를 들면 2時경에 벌써 1時부터 發砲狀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2時경에 31師團이 가져온 實彈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당시에 空輸部隊가 첫 射擊을 했다는 것은 時差가 한시간이나 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記者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否認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이 되면 僞證이 안됩니다마는 사실인 것도 거기에 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 500MD 두臺밖에 31師團에 없었다. 어떻게 여러명 태우는 UH1H가 道廳앞에 내릴 수 있었느냐 이것을 아까 어느 野黨委員이 鄭 雄議員님 얘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質問했는데 어제 任正福證人도 분명히 UH1H 한臺 師團에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이 왔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본 것이 機種이 500MD입니까 UH1H입니까?

분명히 그것도 소신있게 可否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安富雄 UH1H입니다. 1個 分隊가 올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리고 제일 중요한 發砲命令關係입니다.

아까 분명히 여러 차례 위기상황에 처한 正當防衛로서 發砲를 했다는데 우리 張石和委員께서 實彈配給 「이퀵」 發砲命令 아니냐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실탄보급이 發砲라면 벌써 14日경부터 31師團兵力이 放送局 경계할 때 實彈을 15發씩 해서 다 경계초소에 내 보았습니다.

이것도 發砲命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무수행에 들어 가는 사람은 實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自衛權 保有事實에 의해서...

그리고 15日 下午 4時半에 光州 雞林洞 派出所뒤에서 裝甲車가 충돌해서 덮어 가지고

거기에서 將校가 威脅發射를 하고 누구를 쏘았다 안 쏘았다 해서 말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첫 發砲로 확인된 바도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도 역시 이것을 將校들이 그 당시에 實彈을 몇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發砲命令을 받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는 남득이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安富雄 그렇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리고 將校들도 實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發砲命令을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證人 安富雄 아닙니다.

○李敏燮委員 분명히 發砲命令 「이클」 實彈配給이라는 그러한 등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聽聞會해온 바로는 성립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疎明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聽聞會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우리 光州의 그 비극 어려운 진상을 우리가 이렇게 열차례의 聽聞會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어왔습니다. 오늘로서는 이번 聽聞會로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짓는 데는 委員長께서 인색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指揮體系問題라든가 또 流言蜚語問題 暗埋葬問題 火焰放射器의 발사라든가 또 發砲經緯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의 聽聞會를 거쳐서 저희가 많은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역사상에 오늘 하신 證言에 대해서 책임 질 수가 있습니까?

○證人 安富雄 책임질 수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光州의 그 아픔을 우리 모든 國民의 아픔으로 삼고 이 真相調查를 통해서 밝혀진 모든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8年동안 묻혀졌던 많은 진실이 낱낱이 그동안 많이 밝혀진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소명되지 못했던 軍의 명예실추문제 가 있다면 이 문제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證人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所望事項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상 계 訊問은 마칩니다.

○證人 安富雄 당시 光州事態가 지금은 民主化運動으로 正義가 됐고 또 光州市民의 名譽

恢復을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軍도 최선을 다해서 光州에서 法과 秩序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 기회에 軍의 名譽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海瓚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오늘 진시간동안 安富雄證人께서 중요한 證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고 僞證에 가까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僞證에 관해서 한가지 앞으로의 聽聞會의 運營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議事進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安富雄證人의 證言내용을 보면 먼저 張石和委員의 訊問에 대해서 安證人께서는 趙甲濟記者와의 「인터뷰」한 사실자체를 부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辛基夏委員의 質問에 대해서도 또 부인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또 부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고하니 31師團兵力으로부터 철수하는 兵力으로부터 彈藥 두 彈桶을 받아서 將校들한테 나누어주었다고 그렇게 證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지금까지 旅團長이었던 崔雄將軍도 그렇게 證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나왔던 任正福證人이나 金一玉證人 林守元證人 이른바 大隊長級の 모든 軍人證人들이 똑같은 答辯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래서 國民들이 자칫하면 모든 軍人들의 證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믿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證人께서 아까 시인하셨던 것처럼 바로 趙甲濟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이 趙甲濟記者가 쓴 내용은 安富雄證人의 證言한 사실이 아니라고 아까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어떻게 答辯을 하셨느냐 하면 다른 大隊長이 證言을 하는데 옆에 계셨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證言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 證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면 答辯을 하라고 그러니까 證人께서는 林守元大隊長이라고 答辯하셨습니다. 그런데 林守元證人은 3空輸所屬의 大隊長이고 安證人은 11空輸所屬의 大隊長입니다. 여러가지 正황으로 봐서 한 旅團에 所屬된 大隊長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記者와의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證人께서는 마지막에 와서야 本人의 趙甲濟記者와 「인터뷰」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바로 오늘 證人이 證言한 內容中에 일부분과 趙甲濟記者와의 「인터뷰」내용이 그대로 일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21日 空輸部隊가 아니었다면 쌍방의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一般部隊였다면 공포감에 휩싸여 射擊을 서둘렀든지 市民에게 항복해 버렸을 것이다」 이 부분은 趙甲濟記者와의 「인터뷰」와 證人「인터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대목은 午後2時쯤 31師團 「헬」機가 道廳에 내렸을 때 警戒用 實彈을 갖고 왔었다. 이것을 수령했었다. 午後에 發砲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道廳 근처의 빌딩 위에서 空輸部隊員들이 올라가 아래를 향해 射擊을 한것도 掩護用 이었다.

그때 수십만 群衆을 향해 本格的으로 쏘았다면 그 정도만 죽었겠는가? 바로 이 대목을 證人께서는 趙甲濟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상황이 울지 모르고 證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證言에서는 崔 雄將軍이 한 證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이후에 現役軍人인 證人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答辯을 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제 金泳澤記者가 證言한 내용과도 전혀 다릅니다. 어제 金泳澤記者의 證言은 道廳內에서 道知事인가 道警局長으로부터 報告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서 午前 10時에 實彈이 支給되고 있는 것을 記者手帖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10時에 지급된 상황중 얘기하는 證人도 있고 지금 安證人처럼 「헬」機로 空輸해 온 彈藥을 받아서 발포한 것을 證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當 聽聞會에서만은 사실을 溯遊하기 위해서 崔 雄將軍의 證言에 맞추어서 일관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동안 光州聽聞會를 위해서 「리허설」까지 해 가지고 「시나리오」까지 맞추어 왔던 사실들이 미숙해서 이미 그 「시나리오」가 탄로가 나버린 사실이라고 本委員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관해

서 바로 證人께서는 유감스럽기도 증대한 위증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崔 雄將軍 趙甲濟記者 그 다음에 安證人 林守元 그 다음에 任正福 金一玉 이 5名에 대해서는 반드시 對質審問이 있어야겠고 이 위증사실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告發措置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바로 光州民主化運動의 진상을 규명하는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1980年 5月21日 道廳 앞 발포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바로 이 發砲命命을 누가 했고 어느 彈藥을 누가 보냈느냐가 80年 光州 問題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증대한 僞證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의 聽聞會에서 幹事會議을 통해서 對質審問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僞證을 확인해서 告發措置해 줄 것을 委員長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 얘기된 정식으로 文書化 해서 幹事를 통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敏燮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지금 이틀간에 우리가 聽聞會를 진지하게 끝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자세로 이 聽聞會를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國民에 대한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李委員께서 議事進行發言을 해서 對質審問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僞證與否를 告發을 하자는데 방금 제가 安證人에 대해서 訊問을 하면서 어저께도 우리가 東亞日報 金泳澤記者가 쓴 「10日間の 취재수첩」에 관해서 많은 訊問을 하는 과정에서 또 金記者도 그 당시에 직접 보지 못하고 또 조카한테 들었다 또 그 사후에 전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도 몇군데를 정정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하고 그당시의 상황이 많이 사실과 다른 점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오늘 우리 聽聞會 막바지에 月刊朝鮮에서 趙甲濟記者가 쓴 記事를 토대로 해서 證人 여러 사람에게 대한 僞證與否를 가리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特委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해야 될것은 당시에 현장에서 생생히 모든것을 체험하고 證言한 證人의 얘기를 믿느냐 당시에

또는 그 사후에 記者들이 취재를 해서 「인터뷰」한 것중 그중에 여기서도 보면 어느 大隊長이 얘기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安證人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國民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結論을 내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잡지를 토대로 한 그러한 僞證與否는 차후에 論議하기로 하고 이정도 疎明을 마칩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海瓊委員이 얘기하는 것도 李海瓊委員의 견해를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對質審問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兩論이 있으면 자기 논리를 정연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幹事會議를 통해서 우리特委에 제출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서 논란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朴燦鍾委員의 全斗煥前大統領에 관한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우리의 同行命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집행할 것인가? 단 民正黨에서 이것으로써 끝마친다고 하는 통지를 제가 받은 일이 없고 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民正黨에서 조바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같이 조바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다 알아지게 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聽聞會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45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權海玉	金吉弘
朴煥太	辛卿樞	沈明輔
安榮基	李光魯	李肯珪
李敏雙	劉守鎭	鄭東鎭
鄭昌和	金泳鎭	辛基夏
李海瓊	趙贊衡	趙洪奎
崔鳳九	金沄樞	朴泰權
吳景義	李仁濟	張石和
金文元	金仁坤	尹在基
朴燦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潤煥	辛再基	劉基天
李康熙	張慶宇	池蓮泰

金德圭	金榮度	金元基
金忠兆	朴相千	朴錫武
朴英淑	柳峻相	鄭煥雄
趙淳昇	趙昇衡	蔡映錫
韓光玉	許京萬	許萬基
姜三載	尹星漢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陳在勳
立法審議官	金永善

○出席證人

鄭祥容(前 道청항쟁자도부 외무부장)
 林守元(前 3공수여단 11대대장)
 洪錫淑(80. 5. 23. 周南마을의 양민학살상황판면 시민)
 林熙周(80. 5. 23. 周南마을의 양민 학살상황판면 시민)
 李相基(80. 5. 23. 周南마을의 양민 학살상황판면 시민)
 安富雄(前 11공수여단 61대대장)